

Divine Capability

(Matthew 19:26)

"But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to them,
"With me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God is all-powerful (omnipotent)! His divine power is eternal and immeasurable. Through Him Christians receive power. What kind of divine capability does He have? Today's Bible verse tells us, "And looking at them Jesus said to them, 'With people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Mt. 19:26). Amen! Jesus taught His disciples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Whatever things man cannot do, God can! God will give His power to those who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Mk. 9:23). Humans need God's divine capability. We cannot live without it. Let's look at the kind of power God has and Christians receive through faith in and obedience to Jesus Christ.

God has saving power. He is able to save you from death—eternal damnation,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Jesus is the Savior of all mankind.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Heb. 7:25). Note the words "forever" and "lives". Jesus saves you forever (completely and for all time), and He lives to save humans. He lives so that whoever comes to Him can go to heaven. He is our eternal high priest. Our Lord, being perfect, offered Himself for our sins once for all. Because He continues forever, He holds His priesthood permanently. If you go to Jesus, He will wash away your

sins and be able to save you.

God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make you stand in the presence of His glory blameless with great joy" (Jude 1:24). If you think you can stand by yourself, without the help of Jesus, think twice. All those who think they are self-empowered will fall,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that he does not fall" (1 Cor. 10:12). My friends, if you are standing on your own, you have already fallen. You just don't realize it. God is the only one who can keep you from falling into death, despair, and sin.

God is able to sanctify you, "And now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the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Acts 20:32). From the moment you accept Jesus, you are sanctified, standing in perfect holiness before His throne. Your daily growth in grace becomes in practice more and more set apart for God's use until you reach heaven, where you will be fully and completely set apart to God. God makes you strong and holy so that you can receive your inheritance. Satan desperately tries to destroy your building, but God can build it stronger because Jesus has the power to build up. And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do this, "Who are you to judge the servant of another? To his own master he stands or falls; and he will stand, for the Lord is able to make him stand" (Rm. 14:4). Please don't judge other people because you cannot make yourself strong.

Sanctification is accomplished only by the grace of God. The Holy Spirit empowers you, not your own talent.

God is able to help you through your trials and tribulations. Jesus took the hardest test and passed. He is able to help you win any trial, "For since He Himself was tempted in that which He has suffered, He is able to come to the aid of those who are tempted" (Heb. 2:18). He's been there, and He knows the way out. Amen! When you are going through a trial, He can help you so that you can have victory too. God has the power to see you through all suffering.

"And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always having all sufficiency in everything, you may have an abundance for every good deed" (2 Cor. 9:8). Amen! God has the power to do this! Through His grace we can have a rich and plentiful life. Glory be to God! Listen carefully to what the Bible also tells us,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beyond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within us" (Eph. 3:20). The power that works within us is the Holy Spirit. Through the Holy Spirit God gives to us super-duper abundantly. Amen!

God is able to perform what He has promised. Abraham's faith was in God," and being fully assured that what God had promised, He was able also to perform" (Rom. 4:21). Do you believe in God's promises? Do you live your life believing all that God has promised will be done? If not, you should.

God is truth, He cannot lie. His promises are sure!

So, now that you know what God is able to do, why are you so depressed? Why are you needlessly suffering in despair? Why do you give-up and seek others ways, which are earthly and decaying? God is all-powerful! He's given us His absolute love and righteousness through His only begotten Son. He sent Jesus to this earth for you, to die for your sins. Jesus saves us for eternal life. He keeps us from falling apart by sanctifying us through His Spirit. The Holy Spirit builds up your life. When you take the cross and the hard times that come with it, you have to remember that Jesus was already there. He won the victory at the cross so that you can experience success in your life and be filled abundantly with the grace of God. He always works with you. Whatever you ask or think, He will give to you richly. Not only that He promises these things so that He can perform these things.

My friends,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are so stupid. You have access to God's divine capability through Jesus, who loves you with all His heart and His life. You have the Holy Spirit to guide you until your leaving. The sovereign God, creator of everything, is behind you as your Father. Why worry? Start believing in the power of God, and don't give up. Move forward in His power. You have a divine capability that will see you through the worst of times. Praise God! Amen. 



김 성 관 목사

그의 능력 (마 19:26)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신적 권능은 영원하며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얻습니다. 그분은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 아멘!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어떠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 함께 살펴봅시다.

구원하심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죽음, 곧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예수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히 7:25). 여기서 “영원한”과 “살아 계심”의 의미가 중요하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시며(이것은 완전하고 무한한 것(항상)을 의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 계십니다. 그는 또한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완비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가 영원히 존재하시므로, 그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께 나아간다면, 그는 여러분의

죄를 씻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타락을 막으심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 1:24).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과 절망과 죄에 빠지는 것을 막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거룩케 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새우사 거룩케 하시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 20:32).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거룩하며, 그의 보좌 앞에 완전한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성장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를 구별되어 실제 생활 속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별되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탄은 온 힘을 다하여 신자들의 성장을 막으려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가지신 새우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세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 즉 성화(sanctification)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새움을 받으신다 이는 저를 새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롬 14:4).

시험과 시련에서 건지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시험에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8). 그는 늘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으며 그 탈출구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은혜의 풍성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아멘! 하나님은 이를 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부요하고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온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골 3:20).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아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었으며,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도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롬 4:21).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거짓을 말할 수 없으므로, 그분의 약속은 확실히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 여전히 필요 없는 슬픔에 빠져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필요 없이 절망 속에서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주의 함께 하심을 포기하고는 세상적이고 썩어질 다른 길은 찾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과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므로써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새우고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이미 거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면 그는 풍성히 주시며,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실행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언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받음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동류에서 계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약의 시간에 처했었을 때 여러분을 보호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복음의 눈높이, 러시아어집회



기도하자. 또한 이제는 현지인들이 성
경하여 교사가 되도록 기도하자.

찬양

현재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찬양팀이
운영되고 있다. 현지인들이 오름게에
익숙하지 않거나 찬송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찬양팀이 매주
기도로 준비하며 찬양을 인도한다. 찬
양팀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
고 외국인들이 바른 찬양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자.

집회

집회는 설교·기도·광고가 모두 러
시아어로 진행된다. 설교는 교로 3세인
송유한 선교전도사가 러시아어로 하거
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경우는 통역설
교를 한다. 설교자와 예배를 진행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 시간을 통
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
하자.

교재의 시간

오후 시간에는 다양한 모임을 갖는
다. 교사모임과 찬양팀 연습, 기도회를
하며, 또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생활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상담의 시간과 교재의 시간도 갖
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서의 바른 교제와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기도는 기대이다. 이 러시아 집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
해 하신 많은 일들을 기대해 본다. 이
시작하는 아이같은 집회이지만 주님께
서 이곳을 복음의 산실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 기도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는 출현의 가족들이 되길 바란
다.

(선교위원회)

믿음은 예수님이 주셨어요!



리가 자매는 외선부 CIS(구소련 연
합팀)에서 인기가 높다.

언제 보아도 생긋거리리는 미소와 단정
하게 건네는 자매의 인사가 젊은 사람
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혹시 만 마음
이 드는 남자 친구들에게는 좀 아쉬웠
지만 자매는 이미 남편이 있다. 그것도
착하고 듄직하며 신앙심이 깊은 남편
사자가 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는 질

문에 자연스럽게 사사의 이야기가 나온
다. 남편이 먼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으로 일하러 와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
고 남편을 찾아온 자매 또한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자매는 한국말로 '믿음은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대답한다.

또 '한국 교사들이 많이 좋아요. 특히
이렇게 웃는 것. 미소가 좋아요'라며 덧
붙인다. CIS 팀이 독립하여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리가와 사사
는 찬양팀이 되었다. 그리고고도 늦게까
지 남아 의료센터에서 통역도 해주고,
친구들의 이런 저런 사정도 들어주며
한국 교사들과 함께 CIS 팀을 섬긴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왜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 있느냐고 물
어보았다. 자매는 주로 남편이 하는 일
들을 도와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마음에 들고 자매도 그 일을 하는 게 좋
아서라고 한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3살 된 아들이 무
지 보고 싶은 리가, 가족 모두 다 예수님
을 믿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리가, 그
래서 아름다운 리가 자매가, 주님의 훈
령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임정섭 기자)

CIS 지체들의 예배생활은 4부예배

를 기본으로 한다. 러시아어 통역을 통
해 다른 출현의 성도들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신자들이기에 이들이 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래서 이들의 언어로 찬양과 설교와 기
도도 진행되는 러시아어 예배가 2001년
3월에 새로이 생겨났다. 이 러시아어 예
배의 면면을 살펴보면 함께 기도제목들
찾아보고자 한다.

성경공부

CIS 지체들은 교회에 도착하면 물도
비아만·우즈베크·카자흐만·고려인
만·신입만으로 나뉘어서 성경공부를
갖는다. 성경공부는 무슬림들에게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왜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신지 전하는 시간이고,
문화적 신자들에게 선지자가 전해지는
시간이다. 현재는 러시아어가 가능한
한국인 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
러한 신생님의 숫자가 학생에 비해 너
무 적은 실정이다. 실제적인 선교사들
인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교사들을 위해

2001년 여름 단기선교단원 모집

파송 국가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인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일 정	7/23-8/3	7/23-8/3	7/30-8/10	7/30-8/10	8/6-8/17	8/6-8/17
기 간	(11박12일)	(11박12일)	(11박12일)	(11박12일)	(11박12일)	(11박12일)
참가인원	15	8	12	15	12	11
단 장	전홍철 장로	권영목 장로	이훈 장로	이종석 장로	임우진 장로	김의철 장로
지 도	정현민 목사	차병준 목사	송길원 목사	이홍석 목사	류병의 목사	이수근 목사
특기사항	단기(심방/의료)	단기선교	단기선교	단기(심방/의료)	단기선교	단기(심방/의료)

* 항공료의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분야는 현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도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총현의료인의 밤

일시: 4월 26일(목) 오후 6시-9시

장소: 만나홀

대상: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선교위원회 보내는 선교사 모집(자원봉사자)

- ① 언어 특기자 (영어, 기타 제2외국어)
- ② 의전(儀典) 부분에 경험이 있는자
- ③ 행정 지원 봉사자 (본부사역 지원, computer관련업무, 전화 수신자, LMTC 행정봉사자)

기타 본부에서 현지 선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보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보내다 선교사란?

현지에 가서 사역하지 않지만 현지의 선교사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본부
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경찰 전도회 전·의경 전도집회

구원에 이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전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강남, 서
초, 수서 경찰서 소속 전·의경 315명을 교회로 초대했다.

오후 5시, 경찰 전도회원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를 마친 후 나사렛 홀에 모인
전·의경들은 경찰청 폴리텍 합창단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획일적
인 제복과 계급이 말해주듯, 수직적 관계만이 있는 경찰이란 사회 속에 굳어있는
전·의경들에게 확장시절 시합단안을 작성하였던 기억을 되살리며 부드러운 접근으
로 선포된 말씀은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마치 시험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
과 같은 우리의 인생, 과연 우리는 정답을 적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다시금 이어진 도전을 받는 질문들로 예수 그
리스도 그 분만이 우리 인생 모두의 답을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한숙정 집사)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김미경 (청년1부, 74동기)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겉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연히 시작한 일 속에서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뭐 배워 볼만한 것이 없을까해서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저에게 악기를 통하여 연주기법 이상의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암사동 동네와 암사역에서 주마라 합주단이라는 작은 음악회를 통하여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동안에 오고 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 찬양을 연주하며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한 이 일에 처음에는 "나 시간이 없고 바쁘면 과연 잘 될까?" 하며 안주하고픈 마음 속에 참석하면서도 나에게 다가오는 자비한 느낌이 드는 것은 갈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악기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오고 가는 영혼에게 십자가의 참뜻을 알게 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을 당함과 부활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고 가는 영혼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배운 바이올린을 통해서 밴드 오케스트라에서 계속적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공자나 전공자도 아닌데 더 잘 하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위로 받으며 연주를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올해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전공으로 배우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짜증도 나고 한숨만 쉬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보니 곡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되고 제가 잘못한 부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죄에 대한 나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고, 조종과 멸시 속에서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게 하십니다.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뜻을 향해서 뛰어가게 하시며 늘 변함없이 주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청년1부 강남전도

부활의 사랑을 온 땅 위에



△ 사진은 작년 12월 24일 청년1부의 강남전도 장면

청년1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방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 오늘 강남전도를 나갑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부터 9시까지 강남역 한빛은행 앞에서 89명의 지체들이 찬양과 개인전도를 통해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청년1부 전체 회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1시부터 2시까지 도농전도를 실시합니다.

전체 집회와 예배로 인하여 많은 시간동안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강남전도를 통해 청년1부 지체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알아가고 부활의 기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지가 유흥과 소비문화로 가득 찬 강남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태생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열 강남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주일 오후 7시 20분 나사렛찬양연습. 예정대로라면 20분 전에 연습이 끝나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찬양연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열기 또한 금방 식을 것 같지 않습니다.

충전 젊은이들의 자람이자 기쁨인 밴드 찬양대와 고동부 찬양대가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들어 칸타타를 합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입성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부를 찬양은 TOM FETTKKE 곡 (롬 폐기)의 곡으로 8월 8개의 파트로 작곡 되었고, '사육' 및 '주 사셨다'의 주제 음악 후 제2곡부터 '총리찬양' 최후의 만찬-갯세마네기도, 체포와 재판, 십자가상의 죽음, 부활-언약으로 끝나는데 곡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미 알려진 찬송가나 찬양곡들이라 지루하지 않고 친근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힘들다는 찬양 대원들에게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들다는 'ㅎ'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원들을 격려하며 연습중인 강입구 찬양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바쁘신 관계로 잠시밖에 만나 볼 수 없었고,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너무 궁금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절음으로 드리는 찬양

"주 사셨네" (He Shall Arise)

젊은이들과 함께 이번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찬양 연습을 통해 고난의 주님을 만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찬양 감독님들은 매 주일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행복(십자가의 주님이 마련해 주신)을 느끼며 눈물짓곤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교육적 여건이나 특히 그 질적 조건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주 귀하고 좋은 출현교회에서 그 젊은이를 지내는 젊은이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다는 찬양 감독님들, 이곳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한 세계관이 형성되어 온마를 미려관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중3대 새벽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 몹시 추운 날씨에 먼 길에, 옷물들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돌아올 때 마음속에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낀 부활절 연합예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는 찬양 감독님은 주님의 그 사랑이 감동예배엔 아직도 현재 일임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미라 기자)

오늘의 전승

다시 사진 구세주 (151장)

이 찬송은 1934년 알프레드 헨리 액클리(1887-1960) 목사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신앙을 읊어 작시 작곡한 찬송이다.

이 찬송은 미국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이며 후렴의 "그가 살아계신다(He Lives)"의 절규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개가라고 할 수 있다.

마틴루터가 낙심하여 식읍을 전패하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들어갔다. 깜짝 놀란 루터는 "아니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었소?"라고 했다. 그 부인은 태연하게 "하나님이 돌아 가셔서요"라고 했다. 이때 루터는 "여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자존자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데 돌아 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하고 편견이나 주듯 말했다. 이때 부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당신은 왜 그토록 낙심하여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의지하여 새 힘을 얻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다시 사진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은 세상 조종해도 주 정녕 사셨네
내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는 계시네
(후렴)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시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는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주시며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출전: 찬송가해설(김경선지음/신앙에 출판사)

Quiz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와 빌라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극구 그 사실을 부인,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황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 보십시오.

1.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 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요20:11-18)
2.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 무덤 속을 보았을 때 세마포만 있었다(눅24:12). 그 후 나에게 나타나셨다 (눅24:34)
3. 닫힌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셔서 의심하는 나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다 (요20:24-29)
4.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편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분을 만나는 순간 앞을 볼 수 없었다. 아나니아의 기도도 다시 시력을 회복하였다 (행9:3-18)
5.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눅24:13-31)

빈 무덤을 목격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며(눅24:12,24), 유대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이장하였다고 주장하게끔 하였습다(마26:64,28:13).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침조: 생명의(도서출판두란노)/뉴셀프성경(이기페서원)

★ 양오설

5교구 김양녀 집사(여75세) 심부전증으로 관상동맥 협단 연결수술 후 영동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진정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심부전:심장의 수축 운동이 비정상적이어서 신체의 각 부위로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 호흡 곤란, 부종 따위의 증상이 나타남."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쉬며 주님을 모시고 나 설리나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그동안 건강, 직장, 대장암으로 투병 하였던 고길중 성도(5교구)께서 지난 3월28일에 별세 하셨습니다. 꾸준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허영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한 동네 불신자 박진숙 성도의 전도로 총현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규모에 대단히 놀랐다고 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광명한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설광수' 성도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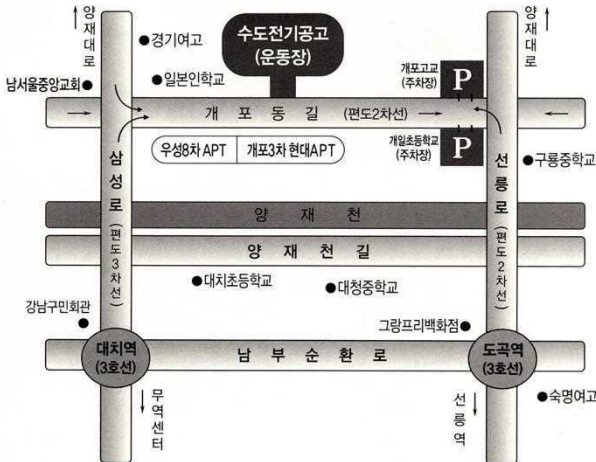
총현교회 근처로 1년 전에 이사왔고 이상설 집사의 전도로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요즘,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범죄함도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신앙의 길이가 더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2001 총현체육대회 오시는 길

약도 때: 2001. 5. 1. 시간: 오전 9시 까지 곳: 수도전기공고 운동장



■교통안내

지하철: 3호선 대치역(2번출구)
도곡역(3번출구)에서 하차
도보 15분 소요

버스: 수도전기공고앞 하차
(서울역: 83-1, 83번
서울운동장 앞: 63번
충무2가: 710, 16번
고속터미널 앞: 710번
미아리, 마장동, 선릉역: 11번
양재역: 83-1, 78-3번
안양, 과천: 11-3번)
개포고등학교 하차(일반버스 222번,
288번, 좌석버스 12번)

■주차안내

1. 주차장: 개포고등학교, 개일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08시부터 18시까지)
2. 출입구가 좁으니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주차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총현교회 전화/02)552-8200

나의 찬양

이 사무엘 (중동1부)

이 사무엘 학생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에서 봉사 하였다. 그 때는 솔직히 간식을 얻으려고 또 아버지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하였다.

성가대는 예배 중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여 예배를 입는 것이다. 그러나 아렸을 때 나는 가운은 그냥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들어오라고 입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성가대를 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시간만 맞추어 오고 다른 데 가는 아이들도 많다. 그래서인지 책임감 없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다가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면 혼나면서 다시 나오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되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꼭 참았다.

지금 중동부에서도 예전에 보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 처음 성가대를 모집한다고 했을 땐 정말로 많이 왔다. 그러나 시간이 8시까진라는 것을 안 아

이들은 요즘 잘 안 나오고 모집했을 때 인원의 반도 안 나온다.

물론 아이들의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먼 곳에서 사는 아이들은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 더 중시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보이지 않을까?

토요일은 다른 날보다 일찍 자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서도 토요일에는 일찍 자라고 하셨다.

우리가 원래는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평일은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렇지만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는 성가대를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간식을 먹기위해 하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하루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이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선 물

박 미 영 (중동3부)



▲ 사진 아래쪽 왼쪽에서 첫 번째가 박미영 학생

'범사에 감사하라' 이란엔 더욱더 큰 의미가 될 주님이 주신 귀한 진리입니다. 눈을 뜨며 시작되는 하루에 감사하고, 나를 부요케 할 양식과 말씀에 감사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줄 반석 같은 편편대로의 강한 손과 그리고 오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난 아버지의 손에 이끌리며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히 종교가 없던 우리 집이었기에, 가족 모두 별다른 저항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성적인 신자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거부감과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의미 없는 교회생활이 몇 년 이나 지났고, 정확한 기억까지 없었지만, 중학교 1학년 말쯤이었습니다. 그때 야 난 비로소 내 일로 주님이 내 마음의 구주가 되셨을 때였고, 내 맘 속에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맘의 주되심을 고백하였고,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계를 사랑하시는 그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기쁨한 날입니다.

'주께 감사드려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 성가의 구절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고통과 비난 속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열아 전 겨울수련회에서 마가복음을 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말씀을 읽어가 는 제 눈을 통해 제 맘에 담겨오는 예수님의 고통에 전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떨어트렸습니다. 부끄럽다 싶 어 얼른 옷깃으로 훔쳐버린 제 눈물, 맘이 아파와 흘린 눈물 한 방울과는 비교도 안될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고통 속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

우리는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 자선이 안고 있는 선물을 새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맘속에 어느새 들어와 있는 '감사'는 그 선물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게 합니다.

그 선물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낮고 낮은 내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을 받고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다 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큰 선물을 받았 습니다. 부활로 인한 구원의 선물...

무심코 의미 없이 보내는 오늘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그 선물을 바라보는 부활절이었으면 합니다

잠언의 새 봄

잠언(Proverbs)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잠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당장 '지혜'라는 단어가 연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잠언에 기록된 시와 비유, 슬기로움, 그리고 격언들은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 국가, 그리고 죄로 망가져서 지키는 방법 등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잠언을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해서만 제대로 안단답니다. 왜냐구요? 잠언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면 잠언은 세상에 가득한 삶의 지혜서와 별 다른 것이 없는 책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럼으로 우선 '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명심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 헬라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지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1장1절-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짓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6장3절과 10절에는 '성령'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재를 깨닫고 주의 도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의 열매로 참된 지혜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보세 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셨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된 '지혜의 왕'이시라는 것이지요. 이사가 선지자는 참치오실 참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하리, 모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계숙)

(김동현 목사·출판국 지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면지니



언뜻 스치거나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여리고여! 여리고여!

멋진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보람된 일이다. 이러한 멋진 친구가 나에게도 있다. 나는 그 친구와 교제를 하다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은혜를 받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에서 '여리고여! 여리고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기 자신이 작은 직장용 '여리고'라고 소개한 친구는 이제부터 직장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며 나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다. 아직 학생의 신분인 나에게도 조금의 약하게 느껴졌다. 그저 직장에서 조용히 전도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힘든 일로 자신을 혹사시키려 할까 하며.

매일 점심시간이 이 친구에게는 여리고 기도시간이다. 식사를 마친 뒤 이 친구는 자기가 정한 직장 안의 건물과 지역을 돌며 동역자를 위해, 믿음의 시작을 위해 기도한다. 직장인에게는 아주 귀한 그 점심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 또한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비록 일주일 중 이틀만 나의 학교생활의 전부지만 이 이틀의 삶이 나에게 고된으로 다가왔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일까? 3자일까?'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던 나에게 이런 친구의 실제적인 모습은 매우 도전적으로 다가왔다. 머리만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 달라며 기도하는 요즈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진리로 깨닫게 해 달라며 기도하는 요즈음, 은혜를 사모한다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 지 않고 증인이 되게 해 달라며 증거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 요즈음, 나는 행함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여리고는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이다. 이제 나의 할 일인 그 고민을 하나님께 갖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이 부활절 아침, 나의 마음의 여리고, 학교의 여리고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를 기도한다. (이종철 기자)

